

7/24/16

설교 제목: 룯의 선택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룯기 1:1-18

- (룯 1: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 (룯 1: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절관주** 창 35:19, 삿 3:30
- (룯 1: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 (룯 1: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십 년쯤에
- (룯 1:5)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 (룯 1:6)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 (룯 1:7)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 (룯 1: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 (룯 1: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 (룯 1: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 (룯 1:11)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 (룯 1:12)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 (룯 1: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 (룻 1: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좃았더라
- (룻 1: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 (룻 1: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 (룻 1: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절관주** 삼상 3:17
- (룻 1:18)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지난 주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다섯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이방인이자 창녀였던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라합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으며 과부였던 룻은 또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에 살았던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먼저 룻기의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사회상을 보겠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약 400 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사 옏니엘을 포함하여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등 모두 13 명의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사사 시대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했으며 절대 진리가 허물어지고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잠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이고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서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 여년 동안 이 짓을 계속 반복한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이스라엘 상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삿 17: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즉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이 진리라고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와 참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다보니 각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원 받고 못 받고가 갈리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룯은 자기 백성과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렸으며 자신의 행적이 성경의 66 권 중에 한 권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룯이 속했던 모압 족속은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못박힌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신 23:3)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 23:4)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러 하였으나

(신 23: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신 23:6)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주받은 모압 족속에 속한 여인이자 과부였던 룿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경유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사사 시대에는 종교도, 도덕도, 정치도 모두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전쟁 흉년 기근 등의 재해를 내리셔서 계속 징계 하셨습니다.

룿이 살고 있던 당시도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들어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하여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간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을 피하여 잘 살아 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 가정은 그곳에서 처절하게 몰락했습니다.

먼저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뒤이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대를 이을 자식도 낳지 못하고 차례로 죽은 것입니다.

결국 이 가정에 남자는 씨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시어미 나오미와 모압에서 맞이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룿 이렇게 여자 셋 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흉년을 피해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이사까지 한 이 가정이 거기서 아주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살기는 커녕 오히려 처절하게 몰락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1.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특히 유대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인 이 가정은 흉년이 들어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약속의 복된 땅을 등지고 불신의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도 이 가정과 같이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징벌을 인간의 꾀로 피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도피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의 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렘 11:9)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렘 11:10)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렘 11:11)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렘 11:12)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범죄한 고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잔 꾀를 부려 징계만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를 내리셨으면 그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에 저항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70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3. 두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아내나 며느리를 맞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신 7: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 7:3)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신 7:4)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방 며느리를 들였고 그로 인해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담한 지경에 이른 이 가정에 희미하나마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룻 1:6)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시어미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에 내리셨던 징계를 거두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온 것을 많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오지 않고 거기서 흉년을 견디었다면 남편도 아들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었을텐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모압 땅에서 머물러 있어 보았자 뽕족한 수도 없습니다.

고심 끝에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내립니다.

나오미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로 한 것입니다.

(호 6: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덮어 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나오미는 아무래도 두 모압 며느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가정에 징계를 내리신 것을 알고 있던 터이라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애꿎게 고난 당하는 며느리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미 나오미는 궁리 끝에 며느리들에게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권고하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룻 1: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룻 1: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룯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자 두 며느리는 각각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룯은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에 가서 죽는 날까지 시어미 나오미를 봉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룻 1:16) 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1: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 1:18) 나오미가 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룯이 택한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입니다.

룻은 시어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가면 모압 여인인 자신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상 가상 가진 재산도 없어 자신이 나이든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생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아버지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갔었는데 오히려 이방에서 얻은 며느리 룻은 과부의 몸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백성되는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선택을 한 룻을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두 며느리의 선택의 결과를 보여 줍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간 큰 며느리 오르바는 성경에 두 번 다시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둘째 며느리 룻은 자신의 이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씨가 마르게 되었던 엘리멜렉 가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매 순간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사이에서, 손익 계산 사이에서 선택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왕상 18: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룻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